

체류형 치유관광 거점 도약

진안홍삼스파,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 재지정

진안군의 대표 치유 관광시설인 진안홍삼스파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은 진안홍삼스파가 제시한 차별화된 치유 관광 콘텐츠와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위한 중장기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진안군이 대한민국 대표 '생태건강치유도시'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안홍삼스파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여름 재개장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보일 공간은 기존의 정적인 사우나 중심 시설에서 벗어나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웰니스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리뉴얼의 핵심은 미안산 정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초대형 홍삼탕과 노천 인피니티풀이다. 특히 루프탑 공간에는 사우나 러닝 코루, 미안산 하이킹 연계 프로그램, 아간 댄스뮤직 세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인



진안홍삼스파 전경.

터랙티브 사우나'를 도입해 젊은 세대의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삼 막걸리와 홍삼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드링크 바, 홍삼 아이스크림 등을 제공하는 스위트 파빌리온을 운영해 미식 요소를 강화한다. 스파 1층에는 감각적인 큐레이션을 더한 '진안 로컬 상품 쇼룸'을 조성해 지역 특산물 소비를 유도하고, 인접한 웰니스 카페에서는 프라이빗 휴식 공간과 로컬 제품 체험을 결합해

체류형 소비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원석과 허브를 활용한 심부 온열 디톡스 테라피를 비롯해 홍삼 릴리프 반 만들기, 홍삼 티 DIY, 홍삼 양갱·정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한층 강화한다. 외국어 가능 전문 인력 배치와 다국어 키오스크·안내관 설치 등 글로벌 관광객 수용 기반도 확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선별기를 도입하고 7일 시연회를 개최했다.

무주군, 사과 품질 경쟁력 강화

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선별기 도입

무주군이 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선별기를 도입하고 7일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과 김성곤 구천동농협장,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총괄본부장, 광동열 무주농협장, 양시훈 조합공동법인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사과 선별 과정을 참관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선별기는 달라님 기술을 활용해 사과의 색상과 크기, 당도뿐 아니라 내부 결변과 미세한 흠집까지 정밀하게 판독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

기존 육안 선별 방식과 달리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선별 처리 속

도는 20% 이상 향상되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규격화된 고품질 사과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무주반딧불사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풍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5,887㎡ 규모로 사과 925톤을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5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상품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시간당 5톤, 하루 최대 48톤을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선별 시스템이 구축됐다.

해당 장비는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자활사업 활성화 속도

자활사업 확대 통해 참여주민 자립 기반 강화

장수군은 장수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구중)의 자활기업 출범과 신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참여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장수지역자활센터는 그동안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맞춤형 직무 교육을 바탕으로 참여주민의 자립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왔으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자활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25년 12월 22일 외식사업단인 '한끼국수사업단'을 자활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독립시켰다.

'한끼국수' 자활기업은 체계적인 운영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참여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자립형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4월 1일부터는 청소·환경관

리 분야의 자립형 사업단인 '장수클린사업단'을 신규 추진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장수클린사업단'은 공공기관 및 사무실 청소, 공동주택 관리, 취약계층 가정 방문 청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센터는 장수군과의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장수클린사업단과 재활용사업단을 연계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개선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역 맞춤형 자활모델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실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와 함양군청 재무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하며 지역 간 상생 협력에 나섰다.

7일 무주군에 따르면, 양 기관 직원들은 지난 6일 상대 지역에 각각 150만 원씩 기부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함양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각각 170만 원씩 상호 기부를 진행하며 지역 간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든 바 있다.

무주군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공직



사회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간 상생 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 계남면·창원 자은동 주민자치위, 교류 행사 펼치

장수군 계남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화식)는 창원특례시 진해구 자은동주민자치위원회들과 진해구 일원에서 만나 2년간 이어온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정을 다졌다고 7일 밝혔다.

계남면과 자은동은 200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단순한 지역 간 교류를 넘어 상호 방문과 협력을 지속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 지역은 매년 진해군항제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등 대표 축제에 서로를 초청하고 가을철에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상생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만남은 제13기 계남면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이후 자은동주민자치회와 갖는 첫 공식 교류 행사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진해군항제 행사장



과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등을 함께 방문했다.

특히 이번 교류는 단순 방문을 넘어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간 협력 기반을 재확인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계남면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6월 15일 개최 예정인 계남면민의 날 행사에 자은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초청해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최대 15만원 지원

진안군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보완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진안군의 맞춤형 보건 정책으로 관내 응급환자가 상급 의료기관 등 타지역으로 이송될 경우 민간이송업체 급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방문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우리아이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확대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아이 스마트 119 구급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아이 스마트 119 구급서비스'는 천식, 알레르기, 경련 등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정보를 사전에 119상황실에 등록해 두는 시스템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와 동시에 환자의 병력과 특이 증상이 출동 중인 구급대원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보호자가 당황하여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소방서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119에 전화하여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